

완도 수산물, 미국 한인 축제서 완판...100만 불 수출하기로

완도군-해성인터내셔널-미국 홈쇼퍼월드-경남무역 4자 간 업무 협약...수산물 판로 확대 모색하는 시간도

완도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열린 제49회 LA 한인 축제에서 「완도 특산물 판촉전」을 개최한 결과 제품은 완판 되고, 100만 불의 수산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완도 수산물 수출 계약식은 지난 9월 23일, 미국 홈쇼퍼월드 LA 매장에서 가졌으며, 완도 수산물이 미국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완도군과 완도군 소재 해성인터내셔널, 미국 홈쇼퍼월드, 주)경남무역과 4자 간 업무 협약을 이뤄졌다.

판촉전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하였으며, 완도군 소재 8개 수산물 수출 기업이 참여했다. 군은 판촉전을 위해 지난 6월, 19만 불 어치의 완도 특산물을 수출하였으며 판촉전에서는 냉동 전복, 광어 죽, 김, 미역, 다시마, 모듬 해

초 등 다양한 수산물 가공 제품을 선보여 완판됐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판촉전에 참여한 업체는 해성인터내셔널, 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담양어조합법인, 바다명가, 완도바다식품, 흥일식품, 누리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이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 팬데믹, 물류 대란 등 글로벌 약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수출은 순항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다시마와 조미 김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배, 2배 상승한 59만 불, 40만 불을 기록했으며, 활 전복과 냉동 전복도 전년 동월

대비 7% 이상 증가하여 각각 99만 불, 62만 불 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매년 가정 간편식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상시 수출 상담소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상시 수출 상담, 적극적인 해외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 미국 현지 1일 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해 얻은 결과이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 완도 전복이 탁월하다는 언론 보도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완도 바다 해조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양식되고 있다고 보도돼 그 영향을 톡톡히 봤다.

판촉전에서 신제품인 프리미엄 광어 죽을 선보인 해성인터내셔널 박지훈 대표는 "판촉전을 찾은 현지 고객들의 완도 제품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더 좋았고, 완도 제품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뿌듯했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대한민



국 청정바다 수도이자 수산 1번지인 군의 미국 내 위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완도 수산물이 교민들과 세계인

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촉 행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귀농산어촌 청년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진도로 돌아온 청년들이 공감하고 도움되는 정책 마련 강구

진도군이 의신면 사천리 소재 운림산방 구름송아토리에서 귀농산어촌 청년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도로 돌아온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연화 부군수를 비롯한 진도군청 관계 공무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9명의 청년 대표가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90여분 간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규호 대표(농업)는 처음 귀농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육아,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진도군이 처한 현실을 얘기했고, 이희주 대표(유통업 준비)는 창업 준비

를 진도군 청년센터의 희망브릿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도군 윤연화 부군수는 참석한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강진군, 만9세~만24세 여성 청소년 대상...연 최대 144,000원 지원

강진군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생용품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중 강진군의 주소를 둔 만

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9~18세의 경우 매월 12,000원으로 연 최대 144,000원을 지원하고, 19~24세는 매월 8,000원씩 연 최대 96,000

원을 지원한다.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만24세까지 지원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 북일면 주민자치회, 행복농촌만들기 은상 빈집리모델링 전입가구 제공, 작은학교 살리기 성과로 이어져

해남군 북일면 주민자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유희시설활용분야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2,440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북일면 주민자치회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빈집 활용을 통해 민관학이 협력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북일면은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 폐교 위기의 북일초와 두문중의 학생 모심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21가구, 94명의 인구가 북일면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전입 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제공함으로써 유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입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실시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145억원 확보

장흥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사업에 국비 72.5억원 등 총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장흥군 관산읍 고읍지구다. 관산을 하발리에 위치한 고읍지구는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 발생 시 농경지가 침수 피해가 잦은 곳이다. 올해는 교량 1곳이 붕괴되는 등 항상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위험 요소가 상존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장흥군에서는 2020년부터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등의 노력으로 올해 신규대상지 선정과 15억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